

## 곤충 대참사

박지수

화창한 가을,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니 이게 가을의 맛이다. 이렇게 좋은 가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을 햇빛이 찬란하던 어느 가을날, 나는 친구와 함께 나의 아지트 고분군에 갔다. 곤충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사마귀를 잡고 싶어 했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곤충 채집에 동참했다. 넓은 고분군 잔디밭은 메뚜기 천국! 방아깨비, 여치, 잠자리, 나비 각양각색의 곤충들이 널려 있었다. 폴짝폴짝 무언가 떨어 때마다 채집 망을 이리저리 휘두르니 금세 가득해진 메뚜기들.

“여겼다!”, “잡았어!”를 외치며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곤충 채집 망을 휘두르며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곤충 채집 망 안에서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가 나한테 뛰어 왔을까 봐 머뭇머뭇 주저하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 아무 거리낌 없이 덩석덩석, 힘들어 보이거나 약한 아이들을 제외한 곤충들은 투명 아크릴 곤충 채집통에 풀을 뜯어 함께 넣어 주었다. 통에 풀을 가득 넣어 집을 만들어 주니 이리저리 뛰던 메뚜기들도 이내 잠잠하게 잘 놀고 있었다.

우리 4학년 1반은 한창 곤충에 빠져서 남학생들이 곤충 잡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곤충 채집통들을 교실에 두고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좋았다.

곤충을 함께 잡은 친구 역시 다음 날 교실에 채집통을 가져와 친구들에게 보여 줬는데, 모든 남자 아이가 몰려들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인기 폭발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문제의 어느 날 3교시에 일어났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우당탕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아슬아슬, 창틀에 놓여 있는 우리 메뚜기들의 집이 뭔가 불안하다. 그 순간, 펑! 역시나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 마이 갓! 메뚜기 대방출이다!

“깅! 잡아! 잡아!”

우리 반은 난리가 났다. 여자아이들은 징그럽다며 소리소리 지르고 책상 사이로 책상 위로 이리저리 도망가고, 남자아이들은 신나게 몰려들었다. 메뚜기도 뛰고 우리도 뛰고! 난리법석!

‘아..... 어찌지?? 저걸 잡아야 해? 아님 나도 못 잡는 척할까?’

솔직히 어제 내가 용감하게 덩석덩석 메뚜기들을 잡았던 게 생생한데, 그 메뚜기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여기저기로 마구 뛰어다니기 시작하니 너무 당황해서 그냥 은근슬쩍 인파 속으로 파고들어 종소리와 함께 냅다 다음 수업인 음악실로 도망쳤다. 음악 시간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메뚜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쉬는 시간 우리 반 곤충 박사들이 모두 투입되어 메뚜기 소탕 작전을 벌였고 메뚜기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메뚜기들을 보시며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날뛰는 게 우리나라 메뚜기나 다를 것이 없어서 야단도 안 치신 걸까?

이날의 곤충 대참사는 전원 체포로 마무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반 곤충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연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날 이후 내게 가을은 메뚜기의 계절이다. 아름다운 고분군의 자연이 있어 가을이 아름답고 메뚜기가 있어 더욱 즐겁다. 곤충은 더 이상 내겐 벌레가 아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가을 친구이다.